

## 중국 건설시장의 현황과 전망(완)

### The Present and Prospect of Construction Market in China

청도시(靑島市)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동수 / 한양대 건축디자인 대학원 조교수  
by Han Dong-Soo

- I. 중국 청도의 도시와 건축
- II. 무영건축의 경험 (1)
- III. 무영건축의 경험 (2)
- IV. 중국 건설시장의 현황과 전망

예상은 하고 있었던 일이지만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다가온 1993년 중국과의 국교정상화는 우리에게 무의미한 대가를 적지 않게 지불하게 하였다. 그리고 이후 이미 8년이란 세월이 흘러갔어도 잘못 끼운 첫단추의 부담은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아니 어쩌면 영원히 해결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숙제로서 남겨져 있다. 특히 손상된 민족의 자존심은 경제적인 실리를 떠나서 제2의 조공시대를 방불케하는 신시대주의의 한중관계를 만들어 버리고 말았다.

최근 들어 IMF 이후 주춤했던 중국을 향한 건축계의 막연한 기대가 2008년 북경의 올림픽 유치확정을 계기로 서서히 달아오르는 느낌을 받는다. 게다가 일부 언론매체의 보도는 벌써부터 앞으로 발주될 100억 달러 이상의 건설시장경기를 들먹이며 우리의 땀이 어느 정도인지를 저울질하는 웃지못할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물론 의욕과 열정을 무조건 탓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이다. 지나친 무리수는 결과적으로 과욕과 과열이라는 쓰라린 경험을 남기기 십상이다. (필자 주)

## 서언

주지하고 있듯이 중국은 개혁개방 이래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구가해왔으며 이와 더불어 건설경기는 엄청난 잠재력을 바탕으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과열된 양상을 낳고 있는게 사실이다(표1 참조)<sup>1)</sup>. 한 예로 중국 국가 통계국은 2001년 8월 중 부동산 개발 경기지수가 전월 대비 25%가 증가한 16.2억달러, 총투자항목은 683개를 기록했다고 발표하였다. 뿐만 아니라 중국 건설부 정일군(鄭一軍) 부부장은 최근에 개최된 전국건설시스템 정보화 업무회의 때 향후 5년간 네트워크를 이용한 정보교환 및 서비스를 위해 각급 정부의 전자정보시스템을 건설하고 2002년 7월 1일까지 기업자질의 성과 및 직원자격을 공개하는 “중국 프로젝트 건설 및 건축업 정보네트워크”, “중국 주택 및 부동산 정보네트워크”의 건설을 완공하려고 한다는 요지의 연설을 하였다. 게다가 최근 북경의 2008년 올림픽 유치의 성공은 건설경기를 더욱더 부채질 하고 있으며 세계무역기구(WTO)의 가입은 대내적으로 중국 건축계의 구조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시장개방의 거센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건축계의 중국을 무대로 한 활동은 일견 보라빛의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듯 하지만 현실적으로 살펴보면 그 거대한 시장은 아직도 다가서기에 멀게만 느껴진다. 그 원인은 몇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 건축설계사무소의 중국건축계 정서에 대한 이해도와 대외적인 지명도, 건설회사의 대외 경쟁력(특히 가격에서 중국 건설업체와의 경쟁력, 기술에서 선진건설업체와의 경쟁력)과 다양한 접근방식(구체적으로는 건설사업 그 자체를 넘어서는 사업기획 및 부동산 개발, 분양, 관리, 보수 등의 분야)이 크게 뒤떨어져 있다는데 있다. 그리고 나아가 중국 건설업계의 시장구조와 정보가 대단히 단편적이고 편향되어 있다는 점을 들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개괄적이기는 하지만 최근 중국건설시장의 동향과 WTO 가입 이후 건설시장의 변화 추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10대 건축의 선정과정을 통해 본 건축개념의 변화

2001년 5월 15일, 8개월에 걸친 심사 끝에 “90년대 북경의 10대 건축”이 결정되었다. 이것은 “50년대

(표 1) 중국의 주요 경제활동지표

구 분		2000년도	2001년도 1~6월	비 고
대중교역	수출	292억불	141.1억불	홍콩포함
	수입	141억불	68.2억불	
	수지	151억불	72.9억불	
한중인적교류	한국-중국	1,345,000명	549,089명	대만, 홍콩 인은 제외
	중국-한국	212,272명	225,530명	
고정자산투자	기본건설		4,685억원(인민폐)	
	개조투자	32,619억원(인민폐)	1,776억원(인민폐)	
	부동산투자		2,123억원(인민폐)	
부동산 개발 판매 동향	용도	주택투자	3,319억원(인민폐)	1,057억원(인민폐)
		상업용투자	840억원(인민폐)	245억원(인민폐)
		기타투자	743억원(인민폐)	233억원(인민폐)
	토지	구매면적	15,267만㎡	4,913만㎡
		개발면적	10,301만㎡	2,624만㎡
	주택	시공면적	63,529만㎡	44,394만㎡
		완공면적	23,028만㎡	3,434만㎡
		판매면적	16,984만㎡	3,795만㎡
		판매액	3,572억원(인민폐)	899억원(인민폐)
	부동산투자총액		4,901억원(인민폐)	1,535억원(인민폐)

북경의 10대 건축”, “80년대 북경의 10대 건축”의 뒤를 이은 세 번째의 일로서 앞서 두 번에 걸친 10대 건축의 탄생과는 근본적인 변화를 보여주었다. 우선, 50년대에 선정된 10대 건축은 완전히 정치적인 배경하에서 결정된 결과였다. 전국의 인력, 물력, 재력, 지력을 총체적으로 집중시켜 최고의 작품을 만들고 그것을 통해 신중국(여기서의 신중국은 1949년 공산화된 이후 탄생된 중화인민공화국을 의미함)의 새로운 면모와 실력을 내외적으로 과시하려는 의도가 궁극적인 목표였다. 그러나 설계과정에서 개인의 역량과 창조적 개념보다는 집단적인 창작의 조화와 지혜를 택함으로써 개성있는 작품의 선택의 여지를 무참히 좌절시켰다. 다만 국내외의 선진 건축기술의 성과를 실질적으로 응용하는 계기가 되어 건축의 질적인 향상을 가져왔을 뿐이다.

그 뒤를 이어 “80년대 북경의 10대 건축”의 선정은 개혁개방 이후 첫 10년 간의 성과를 회고하는 것으로서 1980년 1월 1일부터 1987년 12월 31일 기간에 준공 작품을 대상으로 하되 선정과정에서 강조된 것은 “적용, 경제, 미관”의 설계원칙과 현대적이고 민족적이며 중국인이 직접 설계한 것으로 한정되었다. 특히, 선정과정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는데 먼저 건축계의 전문가에 의한 1차 심사가 진행되고 그 결과를 다시 일반 시민들이 직접 투표를 하도록 하게 함으로서 보다 진일보된 방식을 취하였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의 의식수준은 개혁개방의 영향과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제적인 설계의 단계에 머물고 있었으며 사회주의 사상관념과 사회환경의 제약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었다. 다만 이러

1) 1998년 현재 중국에서 향진(鄉鎮) 이상의 도시에서 건설업 종사자는 2278.9만명이고 세계적인 대규모 건설기업 225개 가운데 30개가 중국건설업체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단 하나의 기업만이 24위를 기록할 뿐 대부분의 순위는 뒤처져 있고 이들 30개 기업의 생산총액은 225개 기업의 총 생산액 가운데 4.3%에 불과하다.

한 방식의 채택은 “북경의 10대 건축”이 가지고 있는 건축풍격(風格)이 북경 각지는 물론 범 중국적인 차원에서 건축문화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점이다.

90년대는 중국건축의 문화가 개방되어 서구의 신건축 개념이 붓물처럼 밀려들어와 중국의 건축가들에게 큰 충격을 준 시기이다. 물론 80년대에도 이러한 양상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 시기에는 그 정도가 거의 동시 발생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90년대 북경의 10대 건축”을 선정하는 기준은 건축면적 10,000미터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가운데 1988년 1월 1일부터 2000년 8월 30일 사이에 준공된 대형 공공건축(아파트와 주거건축은 제외)을 중심으로 “적용, 경제, 미관”의 설계원칙에 부합하고 “민족전통, 지방특색, 시대정신”을 구현하고 있으며 주변 환경과의 조화, 뛰어난 시공수준, 선진 기술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그 결과 새로 선정된 “90년대 북경의 10대 건축”은 역사의 존중, 전통의 반영, 예술형식과 기능의 결합, 첨단 과학기술의 적극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돋보인다고 할 수 있다. 선정된 건축물로는 청화대학 도서관 신관, 북경 향기중심(恒基中心), 북경 신세계 중심, 외국어 교학연구 출판사 사옥, 북경식물원 전람온실, 신동안시장, 중앙 라디오 텔레비전 타워, 북경국제금융빌딩, 수도도서관 신관, 국가 올림픽 체육중심 및 아시아선수촌 등을 들 수 있다.

## 건설부가 추진하는 건설사업의 십오계획(十五計劃)

십오계획 기간 동안, 중국 정부의 근본적인 목표는 경제사회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제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구조조정의 항목을 중심에 두고 개혁개방과 과학기술의 진보에 의존하여 건설업의 발전을 추진하고자 한다. 건설업에서 목표로 삼은 것은 질서있는 발전을 꾀하는 성진건설(城鎮建設)의 새로운 메카니즘 형성, 성진건설과 생태환경의 상호협조를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의 새로운 패턴 구축, 사회화·시장화된 주택의 공급·분배·관리 서비스 시스템 건립, 성진주택의 새로운 체제 확립, 건설관련 기업의 소유구조와 조직 정비를 통한 국제경쟁력 있는 핵심기업의 육성 등을 들 수 있다.

구조조정은 경제사회발전의 지역구조, 농촌과 도시의 공간배치구조를 포괄하며 산업구조, 생산구조, 기업소유구조 등까지도 모두 포괄하고 있다. 건설사업은 농촌과 도시의 배치조정 및 성진화의 급격한 추진과정 속에서 농촌과 도시의 과학적인 계획, 합리적인 배치에 치중하여 농촌과 도

시의 계획이 구조조정을 보장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또한 건설사업이 지속적인 발전의 가능성을 갖기 위해서 산업구조의 조정과 국민생활수준의 변화에 보조를 맞추어 개인의 주택소비시장에 대한 시공수준의 확보, 서비스 및 운영조직 체계의 정비에 주안점을 두었다. 그 결과 새로운 시대의 농촌과 도시의 계획은 이 양자가 일체화된 새로운 국면을 꾀하였다.

그리고 건설시공회사의 경우를 보면 그 동안 대기업은 경쟁력이 약하고 중소기업은 전문성이 없으며 건설인력의 질이 낮아 시장의 혼란을 초래하였기 때문에 과도한 경쟁과 비효율성은 시공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된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십오계획 기간 동안에는 경제와 법률, 행정적 수단을 동원하여 대기업이 사업의 주요 과정을 주도하고 중소기업이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패턴을 갖추려고 한다.

다음으로 주택과 부동산 부분은 투자구조를 지속적으로 조절하고 경제건설에 필요한 건물의 신축에 치중하는 동시에 물자관리와 주택 및 임대시장의 발전에 역점을 두었다. 성진건설에서는 도로의 건설을 강화하고 공공교통체계를 원활하게 정비하는 한편, 품종의 개량을 통한 녹화사업의 투자를 확대하도록 하였다. 또한 시장부문과 부동산 교역시장의 서비스 수준도 제고되어야 할 부분으로 설정하였다.

특히 건설사업에서 추구하려는 개혁의 방향은 성진계획의 관리제도개혁, 건설체제개혁의 심화(深化), 성진주택제도의 개혁, 시장 메카니즘에 입각한 공공사업의 개혁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성진주택제도의 개혁은 안정되고 규범화된 주택보조금 제도를 정착시켜 주택의 화폐화 분배제도를 정비하는 것인데 이는 성진의 저소득층에게 주택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이다.

끝으로 십오계획에서 비중있게 다루고 있는 또하나의 항목은 건설사업에 관한 법제를 정비하고 강화하려는 노력이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마찬가지로 중국 내에서 건설사업과 관련된 관료들의 부정부패와 업체들의 위법사태는 전국적으로 만연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일차적인 작업은 시장경제라는 전제 하에 재산관계, 신용관계, 계약관계를 재정비, 규범화하고 행정업무의 공개원칙을 핵심으로 삼아 사회와 대중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특별히 언급할 것은 올림픽 개최권을 획득한 북경시 정부는 2008년을 건설업의 역사적인 호기로 여기고 첫째 도시의 토지자원과 수자원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도시의 환경과 인구의 적정성 문제를 연구, 둘째 수도의 경제구조 조정을 통하여 대형 전시장, 물류센터, 소매업체의 건설을 도시총체계획에 수렴, 셋째 더 큰 공간규모에서 수도의

발전과 배치를 연구, 넷째 문화유산의 보호와 현대도시건설을 원만하게 처리, 다섯째 도시의 교통문제를 다각도로 검토, 여섯째 도심부 지하공간의 개발과 이용을 극대화 하는 등의 계획설계지침을 제정하는 한편 설계시장을 전면적으로 외국에 개방한다는 방침을 결정하였다.

## 건축설계 입찰방식의 변화

중국 도시 건설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건축 설계도 날로 왕성한 시장의 수요를 보이고 있다. 향후 5년간 중국내 건축설계 인테리어의 공정량은 3,000억원(인민폐)에 이르게 되어 연평균 17%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고, 향후 5년 동안의 부동산 개발 총투자는 3,580억원(인민폐), 고속도로에 대한 총투자는 5,000억원(인민폐), 철도 총투자는 2,450억원(인민폐), 수리 및 도시 기반시설 총투자는 1,200억원(인민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건설부의 계획목표에 따르면 2010년 중국 건설업의 부가가치는 1조원(인민폐) 이상이 될 것이며 건축업은 국민경제의 진정한 주축산업이 될 것이 분명하다. 그것은 현재 범 세계적인 규모를 갖춘 건설회사 225개 가운데 140개 업체가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캐나다의 B+H, 미국의 JY 등 국제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설계사무소 등이 중국내 지사를 운영하고 있음에서도 단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국의 건축설계시장은 2001년부터 입찰방식에 큰 변화가 생겼다. 기존의 입찰공고와 입찰방식은 설계기관과 입찰공고 기관 사이의 불평등 교역으로서 설계기관의 지적재산(도면, 모형, 아이디어 등)은 입찰공고자가 한꺼번에 싸잡아 무상으로 독점하게 되므로 대다수 설계기관의 설계비는 수포로 돌아가야했고 자원의 막대한 낭비를 초래하였다. 이처럼 낙후된 입찰방식을 개혁하기 위하여 건설부와 국가계획위원회는 10여년의 노력 끝에 새로운 방식을 비준하였다. 이 비준안에는 입찰기관은 입찰공고자에게 개념설계안만을 제공하고 전체적인 내용을 제공할 필요가 없으며 입찰공고자는 입찰자와 일대일의 접촉으로 어느 한 회사의 제안을 채택하여 결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예를들어 하나의 사업에 7개의 회사가 입찰하여 입찰공고자와 첫 번째 회사 사이에 이야기가 성사되었다면 나머지 6개의 회사는 접촉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자원의 낭비를 막고 원래의 최대 설계비가 공사비의 2% 정도였던 것을 5%까지 끌어올리 수 있게 하였다. 동시에 관리부문은 사사로운 설계행위를 조사할 수 있으므로 설계시장의 질서를 잡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볼 때 중국의 건축가는 입찰방식의 불공정

이외에도 업주의 인지도 부족과 행위의 비합리성, 판단근거의 부족 등으로 인한 모순을 완벽하게 극복할 수는 없는 것으로 여전히 개선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고 하겠다.

## WTO의 가입과 중국건설업의 전망

중국의 WTO 가입은 세계 경제발전의 필연적인 추세로서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하기 마련인데 우선 전자의 경우를 살펴보면 건설업의 투자를 더욱 증대시켜 보다 확대된 시장을 제공할 것이다. 건설업은 중국국민경제의 주요한 지주역할을 하는 산업으로서 더 많은 기간산업의 건설을 유발할 것이고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외국자본을 이용하는 것이 중국의 기본적인 계획이다. 따라서 중국은 지속적으로 대외개방정책을 표명하여 세계경제체계에 융합되고 투자환경과 시장수요에 자신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건설시장의 대외적인 개방은 더욱 많은 외국자본의 유입을 가능하게 하여 중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다. 또한 중국건설산업구조와 경영방식에도 커다란 변화를 일으킬 것이 분명하다. 기존의 중국건설업체는 외국의 업체와 비교하여 관리와 기술적인 측면에서 가장 격차가 벌어져 있는데 WTO 가입 이후에는 외국으로부터 그들의 경험을 손쉽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므로 획기적인 발전의 계기를 맞을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부정적인 측면은 정부의 국내시장에 대한 정책변화와 시장분할로 중국건설업체는 자본의 재편성을 피할 수 없고 강력한 시장경쟁의 충격을 받게 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것은 과거 국민정서의 관례에 따라 제정된 관리체계가 국내의 시장의 장기적인 격리를 가져왔고 풍부한 인적자원에 의존한 저렴한 건설단가 등은 더 이상 경쟁력의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동등한 환경 속에서의 경쟁에 미숙한 중국의 기업으로서 냉혹한 시장경제 하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국 중국의 WTO 가입은 건설업 전반에 걸친 기회와 도전이다. 비록 어느 정도의 시장충격은 당연하지만 법률제도의 정비와 시장체제의 규범화를 가져올 것이며 시장구조의 개선을 통한 다양한 방식의 자본결합, 기업간의 협력은 시장의 효율을 높이고 기업의 활성화를 자극하게 될 것이다.

## 맺음말 : 무영의 경험이 전해주는 교훈

필자는 지난 몇 해동안 무영건축설계사무소의 청도지사 건립에 직접, 간접적으로 관여하면서 앞으로 중

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설계업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점에 유념할 것을 당부하고 싶다.

우선, 자체적으로 중국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의 확보 또는 가질 수 있도록 사람을 키우는 일일 것이다. 당장 쓸 수 있는 사람이 회사의 단기적인 이익으로는 필요할지 모르지만 워낙 열악한 인적 자원을 가진 우리의 상황에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인재발굴과 그에 상응하는 투자가 절실하다 하겠다. 북경에서 유학할 때 경험했던 하나의 일화는 아마도 인재투자의 방법을 어떻게 찾고 회사의 소유주가 어떻게 접근하느냐의 문제라고 여겨진다. 그것은 한국의 대표적인 주방기기 회사인 H사의 사장이 취한 방법이었다. 중국에는 좋은 학교에서 수 많은 인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당시 H 주방기기 회사의 사장은 주요 대학에서 관련학문을 전공한 졸업생을 일일이 직접 면접하고 포토폴리오를 검토하여 선발한 뒤, 장학금을 주어 대학원에 진학시켜 중국시장의 조사를 주제로 하는 논문을 쓰게 하는 한편, 한국어 강사를 구해 한국어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그들이 한국에 와서 일정기간 연수를 받도록 조치하였다. 그리고 졸업 이후에는 다시 한국 또는 중국지사에 근무토록 함으로서 중국시장에 대한 확고한 기틀을 다질 수 있었다. 다만 이것이 얼마만큼의 효과를 거두었는지에 대해서는 직접 듣지 못했지만 선견지명을 가진 전략이었다고 생각된다. 이 부분은 무영의 경우를 포함해서 중국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주들이 심각하고 고려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으로,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사족이 될지 모르지만 좋은 파트너를 만나 인내심을 가지고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 방법일 것이다. 무영의 경우를 보면 천태건설의 경영자가 보여준 한국 파트너에 대한 신뢰감, 반대로 무영의 경영자가 중국 파트너에 인식시킨 확고한 협력의지는 너무나도 감동적인 한 편의 드라마였다고 할 수 있다. 이같은 이상적인 관계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일방적인 이용이 아니라 서로의 결정을 보완할 수 있는 파트너를 물색하는 것이다. 천태건설의 경우 가장 취약한 부분이 설계분야였고, 무영의 경우는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통로였다. 이것이 서로 잘 맞아 떨어졌다고 할 수 있지만 그 보다 앞서 디딤돌이 되었던 것은 바로 앞서 언급한 바대로 세세한 부분에서부터 큰 그림에 이르기까지 서로가 솔직하게 할 말을 주고 받았던 것이 아닌가 싶다.

세 번째로는 자신이 또 자기의 회사가 무엇 때문에 중국시장에 진출해야 하는 가하는 문제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무턱대고 남들이 가고 시장이 크다는 것 때문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공부를 위해 유학을 갈 때와 마찬가지로 목표와 목적이 분명하지 못하면 결국은 실패하기 마련이다. 이를 위해서는 건설시장에 대한 대상을 국한할 필요가 있다.

어떤 건축의 유형이든지 닥치는 대로 다 할 생각을 하기보다는 가장 자신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부분에 집중적으로 참여할 방안을 찾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그 부분의 중국 취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물론 세계적인 추세도 간과할 수 없다. 중국인들에게 보편적인 정서는 아주 이국적이든지 아니면 중국적인 색채를 농후하게 갖든지 이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하는 경향이 지금까지의 추세였다고 생각된다.

네 번째로는 국제적인 지명도가 낮은 우리의 설계사무실 현실에서 중국 건축계에 자신을 알리는 방법은 중국에서 벌어지는 현상공모전에 부단히 참여를 하는 것이고 또 다른 방법은 출판계를 중심으로 한 홍보활동 및 주요 대학을 발판으로 한 학술지원을 통한 간접적인 방법일 것이다. 공모전의 경우는 우리 처럼 막후의 변수가 크기는 하지만 외국의 유명 설계사무소 또는 중국내 유수의 설계사무소와 협력을 통한 참여는 중국설계시장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좋은 학습의 기회일 것이다. 그리고 학술지원의 경우는 중국건축계가 관심을 가질 수 있고 건축관련 고위관료들을 동원할 수 있는 주제를 정하여 지원을 하는 것이다. 적절한 주제로는 주거문제, 단지계획, 신도시 계획을 비롯하여 한중 건축계 관련료들의 정책 워크샵, 전통의 현대화 등이 있으며 이와 동시에 후원자 자신의 설계작품에 대한 전시를 겸해서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건축관련 단체의 협력 추진하에 주중 한국대사관의 도움을 받아 한국건축계의 성과를 중국내 주요 도시와 대학 건축과에 알리는 순회전시회의 개최도 우리 건축계의 실력을 알리는 바람직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현 시점에서 취해야 최선의 방향은 그동안 추진해왔던 중국 건축시장에 대한 서로의 소중한 경험을 기탄없이 모아서 교류할 수 있는 하나의 조직을 결성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은 자신의 필요 유무에 따라 상대에 대한 강약을 조절하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한 사람의 개인보다는 두 세 사람의 역량을 모으고 더 나가 집단의 힘으로 대항하려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필자는 이미 90년대 초반 학계의 결속을 통한 중국에 대한 접근을 누누히 호소한 적이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당시에는 아무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 귀기울여 들어주질 않았다. 만일 당시 작지만 어떤 조직의 힘으로 그들을 대하고자 하려는 의식이 조금만 있었다더라면 적어도 동아시아의 건축과 도시에 관해서는 나름대로의 주도권을 가질 여지가 있었을 것이다. 애석하게도 우리는 때를 놓쳤다. 남은 것은 지금이라도 이러한 인식을 전제로 중국을 바라보았으면 하는 마음뿐이다. ■